



1. 2021학년도 논술 기출문제 (B형)

1) 문항 및 제시문

언어영역 [문항B-1]

가에서 ㉠의 아름다움이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에서 ㉡의 시적 의미를 해석하시오.

(700 ± 50자)

가

음악 선생이 피아노 반주를 시작한 후, 우리는 엷박자 D의 진면목을 처음 알게 됐다. 그는 놀라울 정도의 박치 이자 음치였다. 음악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모두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노래와 목소리 사이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불길한 기운은 순식간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집어삼켰다. 다섯 소절쯤 지나자 노래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야, 아무리 편안한 맛에 들어왔다지만 그래도 명색이 합창단인데 노래를 이렇게 못할 수가 있냐?”

음악 선생은 반주를 멈추고 화를 냈다. 처음부터 다시 불러 보았지만 불길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세 번째 예야 선생님은 그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잠깐, 이 목소리 누구야? 계속 불러 봐.”

음악 선생은 세 줄로 서 있던 22명의 아이들 앞을 천천히 걸었다. 모두들 긴장했다. 내 노래 실력이 합창을 망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과 그래도 혹시 나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이들의 노래에 배어났다. 불안한 마음이 부르는 노래는, 이미 노래가 아니었다.

“단장, 이거 네 목소리 아냐? 모두 멈추고 단장 혼자 불러 봐.”

엷박자 D의 노래는 들어 줄 만했다. 부드러운 느낌도 잘 살아 있었고, 박자도 이상하지 않았다. 음악 선생은 고개를 가웃거렸다. 뭔가 이상하긴 한데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상한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을 말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시 합창을 시도해 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엷박자 D의 목소리만 들리면 아이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고, 음은 뒤죽박죽이 됐으며 박자는 제멋대로 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였다. 음악 선생은 엷박자 D에게 자진 사퇴를 권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축제 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광고를 여러 곳에 해 두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좋아, 대신 넌 절대 소리 내지 마. 그냥 입만 병긱병긱하는 거야. 알았지?”

[중략된 부분의 줄거리]

엷박자 D는 합창 중에 자기의 목소리를 내게 되고, 결국 공연은 실패한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던 엷박자 D는 대학 시절 무성 영화를 전공하면서 접하게 된 <소리의 전시회>라는 무성 영화에서 영감을 얻어, 음치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 20년 만에 나와 재회하게 된 엷박자 D는 음치들의 노래를 모티프로 하는 공연 기획을 제안한다.

“나는 음치라네, 노래 부르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음치를 어떻게 찾아?”

“쉽진 않았지.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고 노래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방마다 귀를 들이대기도 했어. 그렇게 음치들을 찾아내면 무반주로 부르는 노래를 녹음했어. 웃기는 게 뭔지 알아? 나는 음악 선생에게 맞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내가 음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 대부분의 음치들은 자신이 음치라고 생각하더라. 자신이 알아낸 게 아니고 들어서 아는 거지. 평생 그렇게 세뇌를 당하는 거야. 나는 음치다, 나는 음치다.”

엷박자 D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마음이 불편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엷박자 D의 인생 역경 출연진에 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다. 많은 시간이 지났다. 그때 엷박자 D를 때렸던 음악 선생은 대가를 톡톡히 치렀지만, 어찌면 옆에 있던 우리들도 그의 뺨을 함께 때렸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랬다면 미안한 일이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미안한 마음을 느끼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공연 기획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야?”

“짧게 말하자면, 내가 음치가 아니란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중략>

아주 작게 들리던 음악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관객들 사이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누군가의 노래였다. 아무런 반주도 없이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어 본 노래였다. 그제야 노래의 제목이 생각났다. 20년 전 축제 때 우리가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나나 친구들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엿박자 D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세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고, 네 사람, 다섯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합창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합창이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음이 맞질 않았다. 박자도 일치하지 않았다.

“22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20년 전 바로 그 노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치들의 목소리로만 믹싱한 거니까 즐겁게 감상해줘.”

무선 헤드셋에서 다시 엿박자 D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명은 하나도 켜지질 않았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둠 속이어서 그런 것일까. ㉠노래는 아름다웠다.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마치 화음 같았다. 어둠 속이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음치들의 노래는 어두운 방에서 전원 스위치를 찾는 왼손처럼 더듬더듬 어디론가 내려앉았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몇몇 관객은 후렴을 따라 부르기까지 했다. 1절이 끝나자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명이 켜졌다. 더블더빙이 간주를 연주했고,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은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 브라보를 외쳤다.

김중혁, <엿박자 D>, 고등학교 국어

나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한데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울울창창(鬱鬱蒼蒼)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

안도현, <간격>, 고등학교 문학

사회영역 [문항 B-2]

가와 **나**의 상황에서 기후 문제를 정의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기후 정의의 시각에서 **다** 한스 요나스의 관점이 갖는 의미를 서술하시오. (700 ± 50자)

가	<p>국제 연합(UN)은 날이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기후 변화 협약을 채택하였고, 이에 가입한 당사국은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의무 감축 대상에서 중국·인도 등이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로 교토 의정서 비준을 거부하자, 일본·캐나다·러시아 등도 잇따라 기간 연장에 불참하면서 교토 의정서 체제는 사실상 유명 무실화되었다. 이에 세계는 다시 새로운 기후 변화 체제를 모색하였는데, 그 결과가 바로 2015년 12월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결의한 ‘파리 협정’이다. 파리 협정은 195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로 한 최초의 세계적 기후 합의이다. 온실가스 배출 1, 2위인 중국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가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 대응에 참여한다는 선언에 동참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2017년 6월,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p>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p>기후 변화 현상은 지역에 따라 미치는 영향도 다르고, 해당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역량도 다르다. 네덜란드처럼 물에 뜨는 집을 지어 대처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방글라데시처럼 흠과 짙으로 지은 집이 홍수로 떠내려가 버리는 곳도 있다. 이처럼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특정 국가나 특정 계층에게 더 크게 발생한다면, 이를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아야 한다. 오늘날 기후 변화는 그 발생에 대해 책임이 거의 없는 국가들이 도리어 위험에 노출되는 현상, 즉 ‘기후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p>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다	<p>한스 요나스는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근거로 인류 존속에 관한 현세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미래 세대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그들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책임의 원칙을 다음과 같은 정언명령으로 표현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 너의 행위의 효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의 가능성에 관해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하라.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2) 해 설

언어영역 [문항 B-1]

■ 일반정보

계열 및 문항		인문계 - 언어영역 [문항B-1]
출제범위	과목명	언어영역 : 고등학교 국어, 고등학교 문학
	내용영역 및 핵심개념/용어	문학과 성찰, 차이의 존중과 존중, 차별 개선

■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적용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성취기준	제시문 [가] : 국어 - 김중혁, '엇박자 D' 제시문 [나] : 문학 - 안도현, '간격'

논제 - 사회과 - 사회문화 -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제시문 **[가]** - 국어과 - 국어 - (2) 읽기 -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 읽는다.

제시문 **[나]** - 국어과 - 문학 - (4) 문학에 관한 태도 -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
고등학교교과서	국어	류수열	금성출판사	2019.03	134-143
	문학	정재찬	지학사	2020.03	17

■ 출제의도

이번 인문계 논술문제는, 대상 작품이 추구하는 사회, 문화적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문학적 이해의 능력과,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서로 연관 짓는 통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저마다 다른 가치를 지닌 인물, 집단, 세계와 충돌하며 갈등에 휩싸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갈등과 충돌이 문학적으로 해소되는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세계의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의도를 바탕으로 기획된, 본 문항은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과 시를 선택해, 각각의 작품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찾고, 그것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될 수 있는지 분석하도록 했다.

■ 문항해설

제시문 ㉠은 김중혁의 소설 <엇박자 D>에서 발췌한 것으로, 이 작품은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진 타자들이 어떻게 공존의 길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음악 선생이나 엇박자 D처럼, 조화를 이해하는 서로 다른 관점과 가치들이 충돌하면서 갈등을 만든다. 따라서 엇박자 D의 공연 기획의도가 무엇인지 추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작품이 추구하는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소설의 결말부, 공연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아름다움이란 ‘음치’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 소외된 목소리들의 공존과 조화 가능성으로부터 비로소 비롯된다.

이와 유사한 문제 의식이, 제시문 ㉡의 시에서 ‘숲’이라는 매개를 통해 형상화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갈등도 존재하지 않는 듯 보이는 숲이, 실은 수많은 차이와 개성들이 갈등하면서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은 중요하다. 숲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차이들을 함께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간격, 어쩌면 타자들의 차이에 대한 이해의 공간이 절실하게 요구 된다. 그리고 결국 이 지점에서 시적 자아의 성찰적 깨달음은 제시문 ㉠의 주제와 만나게 된다.

■ 평가기준

- ① 제시문 ㉠의 ‘음악 선생’과 ‘엇박자 D’가 가진 조화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고 있는가? [이해력, 논리력, 분석력]
- ② 제시문 ㉠의 공연 기획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것이 추구하는 사회, 문화적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추론능력]
- ③ 제시문 ㉡의 주제를 이해하고, 그것이 형상화되는 방식을 이해하는가? [이해력, 분석력, 창의력]
- ④ ㉠과 ㉡를 연관지어 해석하고, 그것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가? [추론력, 창의력, 논리력]
- ⑤ 어문규정, 원고 분량 등을 지키고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 평가항목

등급	요건
A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B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①, ②, ③, ④ 가운데 하나가 다소 미흡하다.
C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①, ②, ③, ④ 가운데 둘이 다소 미흡하다.
D	위의 요건 가운데 ①, ②, ③, ④ 중 하나가 기술되지 않거나, 그 중 둘이 매우 불충분하다.
E	위의 요건 가운데 둘 이상이 매우 불충분하게만 언급되어 있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사회영역 [문항 B-2]

■ 일반정보

계열 및 문항		인문계-사회영역 [문항B-2]
출제범위	과목명	사회영역 : 고등학교 사회문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내용영역 및 핵심개념/용어	기후 협약, 기후 정의의 시각, 세대간 정의

■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적용교육과정	제2015-74호 [별책 6], 제2015-74호 [별책 7]
성취기준	제시문 [가] : 사회문화 제시문 [나] : 법과 정치 제시문 [다] : 사회문화

제시문 [가] - [12사문05-04]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

제시문 [나] - [12생윤04-03]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을 비교 설명할 수 있으며 오늘날 환경 문제의 사례와 심각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윤리적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제시문 [다] - [12생윤04-03]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을 비교 설명할 수 있으며 오늘날 환경 문제의 사례와 심각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윤리적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
고등학교교과서	사회문화	손영찬 외	미래엔	2018.03.	198
	생활과 윤리	이희평 외	천재교과서	2018.03.	145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8.03.	141

■ 출제의도

이 문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들의 기후 협약에 드러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 불평등에 내재된 발전과 인권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환경 문제가 정의(正義)의 시각에서 고찰해야 할 논쟁적 주제임을 파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후 정의’(Climate Justice)의 시각에서 책임의 윤리가 갖는 의미를 ‘세대간 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를 기초로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를 분배적 정의의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출제하였다.

■ 문항해설

제시문 [가]는 국제 연합(UN)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기후 변화 협약, 즉 ‘교토 의정서’와 ‘파리 협정’ 체결 과정에 드러난 선진국들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입장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기후 변화 현상이 지역과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 그 영향과 대처 역량이 상이함을 지적하면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특정 국가와 특정 계층에게 더 크게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는 자연 현상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기후 불평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제시문 [다]는 한스 요나스(Hans Jonas)가 인류가 존속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근거로 인류 존속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의 원칙을 강조하는 내용이며, 요나스는 이 책임의 원칙을 생태학적 ‘정언명령’(定言命令)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평가기준

- ①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기후 정의’ 문제를 발전과 인권의 상관관계 가운데 추론하고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 ② 제시문 [가]의 상황을 토대로 제시문 [나]의 내용을 해석하고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추론력]
- ③ 제시문 [나]의 내용을 이해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추론력]
- ④ 제시문 [다]의 의미를 제시문 [다]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이를 제시문 [다]에 나타난 생태학적 정언명령에 따른 책임의 원칙에 근거해 적용할 수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추론력, 창의력, 논리력]
- ⑤ 어문규정, 원고 분량 등을 지키고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 평가항목

등급	요건
A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B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② 또는 ③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
C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③ 또는 ④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
D	위의 요건 가운데 ①, ②, ③, ④, ⑤ 중 하나가 기술되지 않거나, 그 중 ③과 ④가 매우 불충분하다.
E	위의 요건 가운데 하나 정도만 언급되어 있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3) 예시답안 및 첨삭평가

문항	B-1	논술유형	B형 (1교시)	구분	언어
예시답안	<p>ㄱ의 ㉠의 아름다움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내포된 근본적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엇박자 D’와 그가 모은 음치들은 타인에 의해 음치라고 규정되었고, 그것을 내면화하기도 했다. 사회가 개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엇박자 D를 음치라고 규정하고, 자진 사퇴까지 요구한 ‘음악 선생’을 통해 다름을 비정상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배척하기까지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의 생각을 통해 타인의 특성이 목살당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우리들’도 동조자일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음치들은 합창을 통해 각자의 특색이 발현된 진정한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였다.</p> <p>이를 바탕으로 ㄴ의 ㉡은 개인의 특성인 개성이 존재할 자리를 침범하거나 침범당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깨와 어깨를 대고’ 살아가는 공동체는 개인을 존중할 틈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그렇게는 더 자랄 공간도 있지 않다. 그러나 ‘간격’은 자신이 타인을, 타인이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고, 각자로서 존립할 수 있게 한다. 간격이 공동체의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 간의 간격은 필수적이고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조건이 된다.</p>				
첨삭평가	<p>제시문 ㄱ의 ㉠의 ‘아름다움’이 의미하는 바를 사회가 지향할 가치의 측면에서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ㄴ의 ㉡의 ‘나무’와 ‘숲’의 시적 의미를 개인과 공동체로 유추하여 분석하였는데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더더기 없이 답안을 작성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p> <p>제시문 ㄱ의 ‘음악 선생’이 ‘엇박자D’의 다름을 비정상이라고 인식하고 공동체에서 배척하였으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우리들’은 ‘음악 선생’의 행위에 동조자였다는 표현은 다수가 소수를 어떤 방식으로 소외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이 작품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에 더하여 ‘엇박자D’가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음치들의 합창으로 개인 특성이 인정받는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였다는 서술은 ‘엇박자D’가 기획한 공연의 의도는 물론이거니와 작품 속의 관객이나 독자가 느낀 ‘아름다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 근거가 되었다.</p> <p>제시문 ㄴ을 ㄱ와 연관하여 개인의 개성이 존재할 자리를 침범하거나 침범당하지 않을 때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서술은 두 제시문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명확하게 표현한 점에서 우수하였다. ‘어깨와 어깨를 대고’ 살아가는 숲과 ‘간격’이 있는 숲을 비교하고 이를 ‘개인을 존중할 틈’이 없는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에 비유한 서술은 화자의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p>				

문항	B-2	논술유형	B형 (2교시)	구분	사회
예시답안	<p>제시문 ㉠과 ㉡의 상황은 기후 변화 현상에 관한 인간의 책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이 책임이 선택적 사항이 되거나 한 쪽으로 치우치는 상황은 기후문제를 정의의 문제로 봄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p> <p>㉠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기후 변화 협약을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도중에 무의미해지거나 와해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미국이 중국과 일본의 불참을 이유로 교토 의정서의 준수를 거부하고, 새로운 협정의 전 국가의 참여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탈퇴하는 상황은 책임의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형식의 폐해이다. 더불어 ㉡에서 드러나듯이 지역별, 혹은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기후 변화의 상대성은 기후 변화에 책임이 없는 국가들에게 집중적인 피해를 낳는다. 이와 같은 문제상황들은 정의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후 변화 문제를 정의의 문제로 보면, 훼손의 책임을 선택이 아닌 보편타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정당하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이러한 기후 정의의 시각으로 보면, 의 요나스의 관점은 환경에 대한 인류의 무조건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원칙을 제안하므로 정의에 부합하는 의미를 지닌다. 인류가 무조건적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존속시키는 것은 현세대의 이익이나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마땅히 그렇게 한 의무가 있음이 근거가 된다. 따라서 당위에 기반한 요나스의 입장은 정의를 내포한다.</p>				
첨삭평가	<p>기후 문제를 정의의 문제로 간주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제시문 ㉠에 나와 있듯이, 각자가 그에 합당한 몫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이 큰 강대국들이 교토 의정서나 파리 협정 등과 같은 국제적인 노력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상황은 기후 문제가 정의롭지 않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p> <p>두 번째 이유는 기후 문제가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제시문 ㉡에서 국가마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 역량이 다른 상황은 기후 변화가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이 적고, 자연재해 대처 능력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은 '기후 불평등'과 관련 있다.</p> <p>이와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에 나온 한스 요나스의 관점이 필요하다. 한스 요나스는 현세대는 미래세대의 존속을 보장하고 그들이 누려야 하는 삶의 질을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생태학적 정언명령을 언급하였다. 즉, 현세대의 행위가 미래세대의 기후 불평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또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미래세대에 전가되지 않도록 현세대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행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당위적인 책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스 요나스의 주장을 근거로 우리는 전 세계 구성원 모두가 기후 변화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해결에 참여하도록 책임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p>				